

[기획] >> 4면  
우리학교 외국인 유학생

[기획] >> 5면  
해외 교류 제도의 개선 방안

[사회문화] >> 8면  
싱크홀(Sink Hole)과 대처방안

[학술] >> 9면  
인공지능의 이미지 생성과 저작권

Office of International Admissions & Management

HOME JOIN LOGIN

ABOUT

ADMISSION

CURRENT STUDENTS

EXCHANGE PROGRAM

VISITING PROGRAM

ISS PROGRAM

NOTICE

## 우리학교 외국인 유학생의 오늘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VISITING PROGRAM GUIDE

Developed in conjunction with internationally renowned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HUFS offers extensive opportunities to help students grow to become internationally competitive individuals.

Read more

Web Information System

Time table of lecture

Course registration

TOP

우리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 과정에는 여전히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외국인 유학생 현황△외국인 유학생들이 겪는 어려움△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4면에서 계속

김민서 기자 09kimminseo@hufs.ac.kr

### 우리학교, 에코프로비엠과 2차 전지 소재 맞춤형 인재 양성 업무협약 체결

우리학교는 지난달 28일 글로벌캠퍼스에서 에코프로비엠(EcoPro BM)과 '2차전지 소재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헝가리(Hungary)어와 인도네시아(Indonesia)어 등 국가 전략 언어를 전공하고 다양한 융합 전공을 통해 2차전지 소재 산업 역량을 갖춘 우리학교 학생들은 에코프로비엠 헝가리 및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중·단기 현장실습 인턴십(Internship)과 채용 연계의 기회를 얻게 될 예정이다.

이윤석 우리학교 산학연계부총장은 "한국외대는 세계 수준의 융복합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문화△산업△언어△지역을 아우르는 실무형 융합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현장 역량을 강화하고 2차전지 소재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손우영 에코프로비엠 HR(Human Resources)전무는 "언어역량이 우수한 인재들은 산업 현장에서도 빠른 업무 이해도를 보

이고 있다"며 "한국외대와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지역 전문 인력을 적극 양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우리학교는 이중 전공 제도와 다양한 융합 전공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글로벌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다. 특히 일반 융합 전공과 학습자설계 융합전공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학습자설계 융합전공에선 학생이 기존에 개설된 전공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스스로 교과과정을 설계해 이중 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이번 에코프로비엠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들은 전공 역량과 현장 실무 능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는 다양한 융복합 분야를 아우르는 글로벌 실무형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단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영빈 기자 09youngbin@hufs.ac.kr

### 우리학교 이탈리아연구센터, 이탈리아무역관장 초청 세미나 개최

지난달 30일 우리학교 이탈리아연구센터는 페르디난도 켈리(Ferdinando Gualdi, 이하 켈리 관장) 주한 이탈리아 무역관장을 초청해 '한국과 이탈리아 경제 무역 관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탈리아무역관은 1979년 서울에 설립된 이래 한국과 이탈리아의 무역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켈리 관장은 이날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와 이탈리아가 경제 규모와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 유사한 상태에 있는 선진국임을 강조했다. 또한 그간 꾸준하게 성장하던 무역 규모가 최근 다소 주춤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언급하며 환율 변화로 인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구매력 감소를 주원인으로 제시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도 △기계류△보석△제약 분야에서는 예외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이탈리아 수출에선 △제약△철강△플라스틱(Plastic) 관련 분야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다.

양국은 지난해 수교 140주년을 맞이해 지난 2018년 수립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했다. 특히 지난 2023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관계를 재확인

했으며 지난해 기준 135억 달러(한화로 약 18조 8,566억 원)에 해당하는 무역 규모를 기록한 바 있다. 최근엔 △반도체 △배터리△우주항공 등 첨단 산업으로 양국 간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이러한 발전 상황을 점검하고 관세 전쟁으로 인해 유사한 어려움을 공유하는 국가로서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이탈리아어과와 이탈리아연구센터는 주한 이탈리아대사관과 문화원의 협업에 더해 무역관이나 주한이탈리아상공회의소와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특히 하이스트리트(High Street) 이탈리아는 상설 전시관으로서 메이드 인 이탈리아(Made in Italy)를 알리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학교와 추가적인 공동 사업 논의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영빈 기자 09youngbin@hufs.ac.kr

## 미래의 언론인, 111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2025. 5.19(월)-5.26(월)

모집대상: 양 캠퍼스 3학기 활동 가능한 재학생  
(교육 기간: 08.04-08.22 (3주))

지원방법: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및 에브리타임 확인

면접일정: 5.31(토), 6.1(일) 중 (추후 개별 안내 예정)

입기: 25-2학기~26-2학기

활동혜택: 언론 장학금 및 활동비 지급

취재 교육

자기 이름의 신문 기사 발행

명함 제공

좋은 사람들과 소중한 추억

문의: 이승원 편집장 (010-9505-1588)

## 우리학교 글로벌스포츠산업학부 '2025 한국외대 오픈' 개최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글로벌스포츠산업학부(이하 글스산)가 오는 24일 엠부브테니스(MMOVE) 천안점에서 '바볼랏과 함께하는 2025 한국외대 오픈' 테니스(Tennis)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전국 남자 신인 부와 여자 개나리 부 각 48개 팀이 참가할 예정으로 총 192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2025 트렌드 키워드(Trend keyword)인 '원 포인트 업(One Point Up)'을 반영해 참가자들의 경험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Event)가 마련될 예정이다.

주최 및 주관에 맡은 글스산은 국내·외 스포츠 산업 현장에서 활동할 차세대 리더(Leader) 양성을 목표로 △수영△야구△축구△스포츠(Sports) 등 다양한 종목에서 40회 이상 스포츠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번 테니스 대회 역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됐으며 전문성과 참신함을 겸비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참가자들의 기대를 모

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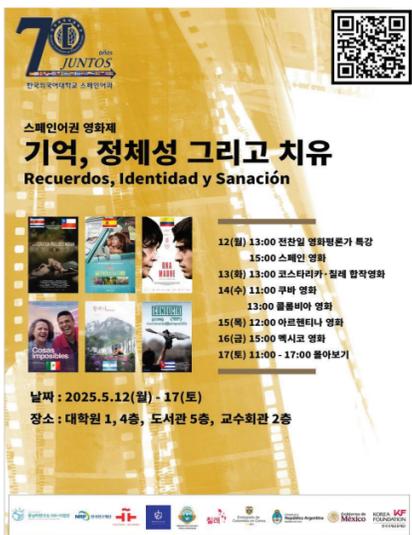
대회는 테니스 코트(Court) 11면과 침단 편의 시설을 갖춘 엠부브테니스 천안점에서 열려 참가자들에게 최상의 경기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세계적인 테니스 브랜드 (Brand) '바볼랏(Babolat)'이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며 △그리핏(GRIPIT)△로엘(RAWEL) 마력(馬力)△레스테(LESTE)△바이오댄스(Biodance)△브리올롬프(briall)△익스트림(EXTREM)△엘러펀츠(ELEPHAANZ)△팡스부대찌개△칭따오(TSINGTAO)△OKAY! 등 총 11개 기업이 후원사로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선 대회 성적에 따라 후원사 제품으로 구성된 다양한 상품과 경품이 참가자 전원에게 주어진다. 또한 수상자들에게 총 500만 원 상당의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며 참가자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원 포인트 업 인증 부스'에선 참가자가 자신의 발

전 포인트를 확인하고 소정의 상품을 받을 수 있으며 '경기 후 피드백 인터뷰(Feedback interview)'를 통해 배운 점과 느낀 점을 공유하고 스스로 성장 목표를 설정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이벤트와 경품 추첨을 통해 참가자와 관람객 모두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주최 측은 "테니스란 스포츠를 통해 단순한 승부를 넘어 참가자 개개인이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한 점을 얻기 위한 순간의 노력과 열정이 최고의 순간으로 이어지는 '원 포인트 업'의 가치를 모든 참가자와 함께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우 기자 10jaewoo@hufs.ac.kr

## 우리학교 스페인어과 창립 70주년 기념 '스페인어권 영화제' 개최



우리학교 스페인어과는 지난 12일~17일까지 학과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중남미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캠퍼스에서 '스페인어권 영화제'를 개최했다. 이번 영화제는 '기억 정체성 치유(Memoria, Identidad y Sanación)'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주한 대사관이 설치된 △멕시코△스페인△아르헨티나 △칠레△코스타리카△콜롬비아△쿠바 총 7개의 스페인어권 국가가 참여했다. 각국이 추천한 총 6편의 주요 작품들이 국내 관객들에게 처음으로 소개됐으며 특히 수교 1주년을 맞은 주한 쿠바대사관이 직접 작품을 선정해 상징적 의미를 더했다.

상영작은 베를린 국제영화제(Internationale Filmfestspiele Berlin) 황금곰상 수상작인 'Alcarràs'를 비롯해 세계 유수 영화제인 △마콘도 △상아리엘 △스아바나 영화제 뉴욕(HFFNY)에서 주목받은 작품들이 포함돼 있었으며 주한 각국 대

사와 영화 평론가의 축사 및 특강이 마련돼 다양한 문화 교류의 장이 펼쳐졌다.

개막식엔 라파엘 부에노(Rafael Bueno) 세르반테스 문화원(Insttuto Cervantes)장과 전찬일 영화평론가가 참석해 각각 축사와 '스페인어권 영화의 역사와 특징'이란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13일부터 주한 △멕시코△아르헨티나△칠레△코스타리카△쿠바 대사들이 연달아 행사에 참여하며 각국의 상영작을 소개했다. 상영작들은 △가족의 재구성△디아스포라(Diaspora)\* 정체성△사회적 불평등△전통의 소멸 등 스페인어권 사회 전반의 핵심적인 사회·문화적 의제를 다뤘다. 본 영화제는 서울 소재 대학 중 최초로 개최되는 대규모 스페인어권 영화제로서 주목받았다. 해당 행사에서 상영된 모든 영화엔 한국어 자막이 함께 제공됐으며 우리학교 구성원은 물론 스페인어권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

라면 누구나 관람이 가능했다. 마지막 날엔 주요 작품을 연속 상영하는 '몰아보기 프로그램'도 마련돼 관객들에게 연속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정길화 우리학교 스페인어과 총동문회장은 "이번 영화제가 단순한 상영회를 넘어 한류와 라틴 문화를 잇는 실질적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우리 학과를 대표하는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란 뜻으로 고국을 떠나는 사람 혹은 집단의 이동을 의미

현재우 기자 10jaewoo@hufs.ac.kr

## 우리학교, 미국 Central Pacific Bank와 해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지난달 30일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총장실에서 미국 금융기관 센트럴 퍼시픽 뱅크(Central Pacific Bank, 이하 CPB)와 재학생 대상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Program)은 양 기관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다가올 8월부터 1년간 해외 현장실습 인턴십(Internship)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1954년 설립된 CPB는 뉴욕(New York)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하와이(Hawaii)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 호놀룰루(Honolulu) 본사를 중심으로 27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인턴십은 급여 및 주거 지원 등 최상위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놀드 마르티네스(Arnold Martines) CPB 은행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외대의 우수한 인재들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인턴십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가올 8월부터 시작되는 인턴십 1기에는 김지혜(경상·GBT 21) 학우와 변세연(서양어·스페인어 19) 학우가 선발됐다. 김지혜 씨는 CPB의 다문화적 업무 환경에 적합한 디지

털(Digital) 콘텐츠 전략과 사회 공헌 아이디어(Idea)를 제시해 주목을 받았으며 변세연 씨는 국제 금융과 다문화 소통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두 학생은 CPB 주요 부서에 배치돼 실무를 경험하게 되며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하와이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문화 간 소통 역량과 글로벌 감각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연 우리학교 설캠 학생 인재개발처장은 "이번 인턴십은 단기 교류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산학협력 모델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학생들의 해외 진출과 커리어(Career) 성장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영빈 기자 09youngbin@hufs.ac.kr

## 우리학교 GTEP사업단 국내외 박람회서 활발한 활동... 차세대 무역 인재 양성

우리학교 지역특화 청년무역 전문가 양성사업단(이하 GTEP 사업단)은 최근 중동과 아시아(Asia) 주요 지역에서 열린 대형 전시회에 연이어 참가하며 국제 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14일~16일까지 GTEP 사업단은 협력업체인 ㈜아운메디아와 함께 중동·북아프리카(Africa) 지역 최대 규모의 피부미용 전시회인 '두바이 더마 2025(Dubai Derma 2025)'에 참가했다. 김민준(경상·국금 21) 씨와 손승민(통번역·태국어 20) 씨는 현장에서 △유튜버 및 바이어(Buyer) 대상 제품 전시·상담△통역 업무△관매 지원을 맡아 실전 경험을 쌓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8일~11일까지 이재현(서양어·독일어 19) 씨는 협력업체인 ㈜갓바위김과 함께 싱가포르에서 열린 '식품·음료 전시회(FHA-Food & Beverage)'에 참가해 △말레이시아(Malaysia)△싱가포르(Singapore)△인도네시아(Indonesia) 등지의 바이어를 대상으로 신제품 설명과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달 28일~30일까지 김송은(통번역·일본어 20)씨는 협력업체인 ㈜이코스맥과 함께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뷰티월드 재팬 2025(Beautyworld Japan)'에 참



가해 제품 홍보 및 일본어 통역을 담당했다.

이와 함께 GTEP사업단은 국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스페인어권 라틴 박람회△2025 서울커피엑스포(Coffee Expo Seoul)△2025 코리아 커피 & 디저트 페어(Korea Coffee & Dessert Fair) 등 다수의 전시회에 참여해 국내 무역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한편 GTEP사업단은 5월 상하이에서 열리는 '미용 박람회'에도 학생들을 파견해 현장 중심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우 기자 10jaewoo@hufs.ac.kr

# 우리학교 기념품의 현주소

지난달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이하 에타)에선 학교 야구점퍼(이하 학잠) 공동구매와 관련한 대규모 환불 및 수선 사태가 벌어졌다. 이와 같이 재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외부 업체를 통해 공동구매를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우리학교 기념품

에 대한 불만족이 지적되고 있다. 이 외에도 기념품 품목의 다양성과 디자인 등의 측면에서 우리학교 재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학교 기념품 현황과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우리학교 기념품 현황과 문제점

예전부터 우리학교 학생들은 학교 공식 판매처가 아닌 에타 등 각종 커뮤니티(Community)를 통해 자발적으로 구매 희망자를 모집해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형태로 학잠을 구매해 왔다. 개인이 업체를 통해 대량 구매를 중개하는 해당 방식은 지난달 벌어진 에타 학잠 대규모 환불 사태로 인해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흡스샵(Hufsshop)에서 학잠을 판매중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해당 공동구매에 참여했던 사실은 우리학교 기념품이 재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외대학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잠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66.7%가 에타 공동구매를 통해 구매했다고 응답했다. 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설캠 총학) 아우터(Outer) 공동구매와 흡스샵을 통해 구매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6.7%였다. 에타 공동구매를 선택한 이유론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가 44.4%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 학생 A씨는 "에타 공동구매의 경우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이 있어 선택했다"며 "흡스샵이나 설캠 총학 공동구매 품목의 디자인이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해 에타 공동구

매는 2온스(Ounce) 두께의 일반 학잠 8가지 색상과 크롭(Crop) 학잠 6가지 색상으로 구성됐다. 반면 흡스샵은 0온스와 4온스 두께의 일반 학잠을 4가지 색상으로 판매중이며 크롭 학잠은 단일 색상으로 판매중이다.

이 외에도 우리학교 기념품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31.3%가 '다소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론 다양하지 않은 종류(75%)와 만족스럽지 않은 디자인(62.5%)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우리학교 기념품 판매 주체는 이문일공철과 흡스샵이 있다. 이문일공철은 △문구△사무△생활용품 등 잡화류와 의류를 판매하고 있으며 흡스샵은 학잠을 비롯한 의류를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문일공철은 학교 홈페이지(Homepage) 내에서 개별 품목을 확인할 순 있지만 한눈에 상품 종류를 확인하기 어렵고 별도의 온라인(Online) 구매는 불가능하다. 또한 우리학교 마스코트(Mascot) 부(Boo)와 관련된 기념품은 전혀 소개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 학생 B 씨는 "기념품 종류가 더 많아지고 부를 활용한 다양한 품목이 다양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나아가야 할 방향

타 학교 사례를 살펴보자. 숭실대학교 기념품샵의

경우 △교화△영문△자수수로 등 다양한 디자인의 학잠을 판매 중이다. 경희대학교는 마스코트 '쿠옹'을 활용한 △마우스패드(Mousepad)△머그컵(Mug)△판박이스티커(Sticker) 등을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또한 마스코트인 스누를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의 인형과 키링(Keyring)을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학교 기념품도 품목과 디자인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외대학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잠의 △로고(Logo)△문구△색상△자수 등 디자인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 이와 관련하여 설캠 총학 아우터 공동구매의 경우 해를 거듭하며 디자인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된 시안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설캠 총학은 "제58대 설캠 총학에서 제작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이전 공동구매에서 제시된 피드백(Feedback)을 수렴해 수정된 시안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공동구매의 경우 새로움과 효용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흡스샵 역시 이러한 디자인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공모전 등을 통해 기념품 디자인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숙명여자대학교에선 마스코트 눈송이를 활용한 '눈송이 굿즈(Goods) 공모전'을 진행한 바 있다. 재학생을 대상

로 작품 접수가 이뤄졌으며 홍보팀과 총학생회(이하 총학)가 1차 심사를 거쳐 9개의 작품을 예비 선정했다. 이어 온라인 학생투표 방식으로 2차 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접착 메모지△그립톡(Griptok)△자개 스트랩 키링(Strap keyring)으로 수상 이후 △입학팀△총학△홍보팀이 협력해 추후 실물로 제작되어 총학에서 공동구매를 진행한 바 있다.

기념품은 단순한 상품을 넘어 학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이다. 현재 우리학교 기념품은 △다양성△디자인△실용성△접근성 측면에서 재학생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념품 다양화 및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재학생들이 자긍심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

박지연 기자 10jiyeon@hufs.ac.kr

## 후속보도

# 학내 게시판, 자유로운 표현과 공공질서의 조화를 위해선

지난 1081호에선 우리학교 게시판 관리 문제에 대해 다뤘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총괄지원팀과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공용 게시판을 포함한 학내 게시판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질적인 개선은 이뤄지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둥△계단△벽 등 학교 곳곳에 부착된 불법 게시물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학내 게시판 관리 및 무단 게시물 현황△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학내 게시판 및 불법 게시물 관리 현황

현재 학내엔 수많은 게시판이 존재하지만 이 중 일 부만이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어 불법 게시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외대학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내 게시판에 게시물이 지나치게 많아 불편함을 느낀 경험을 묻는 질문에 53.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불편을 목격한 장소로 △국제학사△사회과학관△인문과학관 지목됐으며 구체적으로 '가시성 저하(71.4%)'와 '미관 손상(71.4%)'에 가장 많은 응답이 기록됐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 학생 A씨는 "게시물이 마구잡이로 붙어 있어 정작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며 "게시판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학내 게시판의 관리 주체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총학이 관리하는 게시판 이외에는 △일부 건물 및 부서의 장△총괄지원팀△학생지원팀에서 게시물의 관리를 맡고 있는 상황이다. 교내 규정에도 게시물의 분류와 게시 방법 등은 명시돼 있으나 게시판 자체의 관리운영 및 책임 부서는 지정돼 있지 않다.

먼저 각 건물 입구 및 실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경우 해당 공간에 위치하는 부서의 장에게 운영 및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단 규정에 의거해 △대학원△도서관△법학관△사이버관의 경우만 게시물 운영

및 관리가 각 건물에 위임된 상태이고 △교수개발 학습원△국제학사△사회과학관△인문과학관의 경우 책임 부서가 지정돼 있지 않다.

두 번째로 현재 총학이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시판은 △국제학사 1층 남학사 옆 통로△국제학사 1층 엘리베이터 앞△국제학사 4층 총학실 앞△사회과학관 105-1호 앞△인문과학관 본관쪽 1층 계단△인문과학관 학식당이다. 지난해 제58대 총학은 게시판 사전 신청 제도를 통해 해당 게시판을 운영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게시 신청부터 실제 부착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단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총학은 "현재 전락소 통국에서 사전 신고만으로 누구나 직접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 중이다"라며 "6월 중 개편된 게시판 운영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게시물 관리운영의 경우 설캠 내 학생 게시물은 학생지원팀에서 관리하며 일반 게시물은 총괄지원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개발 중인 행정지원처 홈페이지가 노출돼 총괄지원팀 게시판엔 학생게시물의 담당부서가 총괄지원팀으로 명시되는 등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총괄지원팀은 "현재는 사이트를 폐쇄한 상태이며 개편 이후 다시 공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캠퍼스 내에서 게시판이 아닌 장소에 부착된 무단 게시물을 목격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53.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총학 및

학내 부처가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게시판을 제외 한 기타 학내 게시판엔 자율적으로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게시물의 관리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총괄지원팀은 "규정에 의거해 총괄지원팀을 직접 내방해 허가를 받는 게시물의 경우 규정에 부합한다면 부착을 인용하고 부착 가능 수량 및 위치를 안내하고 있다"며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타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게시되는 게시물의 건수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 학기 시작 전 게시판을 점검하는 절차를 수행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해당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 ◆나아가야 할 방향

학내 게시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선 게시판마다 명확한 관리 주체를 지정하고 이를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처럼 여러 부서가 각기 관리하는 구조는 효율적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홍보물 게시 관련 규정에 따라 모든 홍보물로 하여금 검인을 받은 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때 반드시 게시 기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 모든 홍보물은 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이 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현수막 및 포스터(Poster)의 규격과 게재 가능한 매수 역시 게시 주체에 따라 제한돼 있으며 동일 게시판에

2매 이상 게시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또한 홍보물의 철거 시 자진 철거가 원칙이나 자진 철거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총무처에서 해당 홍보물을 철거할 수 있으며 이때 철거된 홍보물은 반환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리 주체의 명시△규격 및 매수 제한△사전 검인 절차 등 학내 게시물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은 원활한 게시판 운영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무단 게시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관리 인력 확보 역시 중요하다.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게시판 관리를 전담하는 학생 근로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총학△학교△학생이 함께 책임감을 갖고 관리 체계를 정비해 나갈 때 게시판이 학내 소통의 장으로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로운 표현과 공공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게시판이 되길 기대한다.

박지연 기자 10jiyeon@hufs.ac.kr

# 수는 늘었지만 정착은 어려워... 우리학교 외국인 유학생의 오늘

해마다 증가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우리학교의 다문화적 위상을 드러낸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2,717명으로 5년 전보다 450명 이상 증가했다. 또한 △교환학생△방문학생△학위 과정 등 다양한 형태의 학생들이 캠퍼스를 채우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기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학교 외국인 유학생 현황△외국인 유학생들이 겪는 어려움△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우리학교 외국인 유학생 현황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우리학교 외국 학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2,717명이다. 전년 대비 약 150명 정도가 증가한 수치다. 교환학생으로 우리학교에 오는 학생은 수업 언어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 능력을 요구받는다.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학교에 한국어 트랙(Track)으로 입학할 경우엔 △국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인증 대학 소속 한국어 교육기관 및 해외 세종학당 정규 교육 과정 수료증△우리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정규교육과정 수료증△토픽(TOPIK) 3급 이상 중 하나가 충족되어야 한다. 영어 트랙(Track) A로 입학할 경우 △아이엘츠(IELTS) 5.5 이상△토플(IBT(Internet Based Test) 71점 중 하나로 언어 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 영어 트랙 B의 경우 한국어 트랙 또는 영어 트랙의 조건 중 하나를 요구한다. 우리학교에 등록된 외국인 유학생 중 △학위과정은 1,835명△어학연수생 882명△교환학생 332명△방문학생 97명으로 나타났다. 대학알리미 공시 정보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중 한국어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토플 4급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592명이었으며 영어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토플(TOEFL) PBT(Paper Based Test) 530 수준 이상인 학생은 모두 174명이었다. 이와 같이 교내에서 각종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는 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언어능력을 충족한 학생의 비율은△2022년 56.21%△2023년 51.46%△2024년 42.56%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교환학생 유치를 위한 일정한 기준과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입학 이후의 학업 적응과 생활 정착 과정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

는 수준의 전공 언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고 전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업뿐 아니라 생활적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한국에 처음 온 직후 계좌 개설이나 통신 수단 확보 등 기초적인 생활 정착 과정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실제로 A 씨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항상 현금을 소지해야 해 불편했다"며 "또 추가적인 현금 인출 시 계좌가 필요



한데 그 과정에서도 한국 계좌가 없어 곤란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학생들이 사용하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Messenger Application)을 이용하지 않아 기본적인 소통에서부터 제약을 느끼는 유학생도 있었다. 일본인 유학생 B 씨는 "원래 주로 사용하던 메신저는 라인(Line)이어서 한국 학생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카카오톡(Kakao Talk, 이하 카톡)이 낯설었다"며 "한국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기 위해 따로 카톡을 설치했으나 알림이 걸치고 자주 확인을 못 해서 답장이 늦어지는 일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친구들끼리 중요한 공지나 과제 관련 내용을 카톡 단체방에서 빠르게 공유할 때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초기 정착 단계에서 마주하는 실생활 기반의 불편은 유학생들에게 스트레스(Stress)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담당하는 우리학교의 외국인유학생종합지원센터(이하 ISSC)의 인력 부족 문제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ISSC 측은 "현재 행정 직원 1명이 2,000명이 넘는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하고 있다"며 "담당 업무가 광범위하다 보니 △방문△이메일△전화로 들어오는 문의 사항을 모두 응대하는 동시에 본래 해야 할 업무를 병행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ISSC 측에 따르면 한 명의 직원이 다양한 언어권의 학생들을 상대해야 하기에 구급 번역기를 통해 유학생들과 소통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ISSC 측은 "다른 언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더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수강 편람이나 교내 안내 대부분이 한국어로만 제공되는 현실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ISSC는 "우리나라 학생들은 간단한 검색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유학생들은 언어 문제로 인해 반복적으로 문의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언어 장벽을 넘어 낮은 정보 접근성의 문제로 파생된다.

아울러 생활 정착을 위한 지원 시스템의 실효성 또한 보완해야 한다. 따라서 △계좌 개설△대중교통 이용법△통신 서비스 가입 등 기본 생활 정보를 다양한 언어로 작성한 안내 책자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연세대는 외국인 유학생의 정착을 돕기 위해 '글로벌 원스톱서비스센터(Global Onestop Service Center, 이하 GOSC)'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학생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다국어로 안내하고 있다. GOSC에선 △건강보험 가입 및 병원 이용 안내△교내 인터넷 사용법과 IT 서비스 이용 방법△ID카드 발급 및 은행 계좌 개설 절차 등 생활 밀착형 정보를 영어와 중국어로 제공한다. 해당 정보는 항목별로 정리돼 있어 입국 초기의 실질적인 불편을 줄이고 유학생 스스로 필요한 행정·생활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교내 정보 제공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는 필수적인 정보가 여전히 한국어로만 제공되고 있고 그로 인해 유학생이 반복적으로 ISSC에 문의를 하게 된다.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 유학생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ISSC 내부에도 언어별 상담이 가능한 전담 인력을 확보하거나 일정 시간대마다 해당 언어로 상담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한양대학교의 경우 캠퍼스 내 라운지(Lounge)에 글로벌 인포메이션 센터(Global Information center)를 설치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총학생회 주도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생활적 측면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우리학교 총학생회에선 영어 및 중국어로 정보를 담은 카드 뉴스를 개시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북대학교 제55대 총학생회는 교내 법률지원센터와 협력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생활 정보 카드 뉴스를 제작한 바 있다. 해당 카드 뉴스엔 위급 상황 발생 시 112 신고 방법과 부동산 거래 시 유의 사항 등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 중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가 담겼다.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히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학업△행정 전반에 걸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유학생이 학내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학교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ISSC는 학기 방학마다 원활한 수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한국어 수업을 포함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1:1 진로 및 취업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제학생회(ISO) 등은 외국인 유학생과 우리나라 재학생 간 교류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보다 나은 학교 생활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학교에서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선 언어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정비가 필요하다. 먼저 대학 수업을 염두에 둔 학문 목적 한국어 중심의 수업 개설을 고려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이하 연세대)는 유학생들의 학업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발표 준비 및 글쓰기 중심의 학습법 특강△재학생과 유학생 간 전공 학습을 함께하는 튜터링 프로그램(Tutoring Program)△토플 4급 이상 취득을 목표로 하는 스터디(Study)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언어 교육을 수업 이전의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학업 역량 향상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은 유학생의 실질적 학습 참여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 ◆외국인 유학생들이 겪는 어려움

먼저 우리학교에서 강의를 수강하기 위한 언어 능력이 부족해 수업을 이해하기 어렵단 학생들이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본국에서 한국어 전공인 경우 별도의 어학 성적 없이 우리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중국인 유학생 A 씨는 "교환학생으로서 겪는 가장 큰 문제는 한국어 실력이다"며 "수업을 원활히 이해할 만큼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한국인 친구들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아 친구를 사귀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한국어 전공 외 타 전공인 경우엔 토플 3급이 요구되지만 이 역시 대학 강의를 이해하기에 부족하다. 토플 홈페이지에 따르면 토플 3급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다양한 공공시설의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기초적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결과적으로 토플 3급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 실력을 증명할 뿐 대학 수업을 이해하기엔 부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경제학 관련 강의를 담당하는 C 교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수학을 활용해야 하는 단원에서 뿔

# 글로벌 시대의 딜레마: 해외 교류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세계화 시대만큼 해외 대학과의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Program)은 국내 대학들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로 부상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국제 경험을 장려하려는 대학의 표면적 기조와 달리 실제 제도 운영에 있어선 곳곳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해외 대학 교

류 프로그램의 현황 △해외 대학 교류 프로그램의 문제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 보자.

## ◆해외 대학 교류 프로그램의 현황

우리학교 해외 대학 교류 프로그램은 국제교류팀(이하 국교팀) 아래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목표로 운영 및 관리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교류 프로그램은 △교환학생 △방학 단기연수 △복수학위 △자비유학 △학·석사 △7+1 파견학생 등이 있으며 각 프로그램엔 △지원 자격 △과제 목적 △학점 인정 방식 등 구체적인 선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프로그램 지원자는 누적 평점 평균 기준(GPA) 최소 3.0점 이상의 학점과 2학기 이상 수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파견 국가별 언어 능력과 △TOEFL △IELTS △TOEFL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인 영어 성적 제출이 요구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국제 네트워크(Network) 구축 △언어 능력 향상 △전공 심화 △학문적 교류 등 학생들의 국제적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우리학교는 △아프리카 △유럽 △중남미 등 55개국 505개의 대학과 협정을 체결했고 정기적으로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 학생들을 정기 선발하고 있다. 이중 7+1 파견학생 프로그램은 국제교류전형과 학과선발전형으로 나눠 운영된다. 국제교류전형 같은 경우 국교팀이 직접 선발을 주관해 전공과 무관하게 누구나 지원할 수 있지만 학과선발전형은 각 학과 주관 하에 1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이 이뤄진다.

## ◆해외 대학 교류 프로그램의 문제점

우리학교를 포함한 대다수 대학들이 해외 대학과의 교류를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학교의 경우 △경쟁률과 선발 인원 관련 정보 제공의 부족 △교환학생 지원 제도의 미비 △해외 프로그램의 학점 인정 제한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중 7+1 파견 프로그램은 재학생들이 8학기 중 최소 한 학기를 해외 대학에서 수학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학생들의 국제적 역량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선발 기준과 지원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외대학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31.6%가 '7+1 파견 프로그램'이 가장 불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이라고 답했

다. 구체적인 이유론 먼저 교환학생 제도와 비교했을 때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단 점이다. 교환학생 제도의 경우 학생들은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해외 대학에서 수학하게 되므로 소요되는 비용이 국내 등록금과 동일한 반면 7+1 파견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해외 대학에 직접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본교 등록금이 면제된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지만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영어권 대학은 해외 대학에 납부해야 하는 등록금과 현지 생활비 등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드는 비용이 적지 않다"며 "결국 개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제도적 혜택이 체감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프로그램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지 수학에 드는 총비용이 부담스러워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7+1 파견프로그램의 경우 대학별 선발 인원이 소수로 제한돼 있어 학생들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단 비판이 존재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류 프로그램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무엇인가"란 질문에 84.3%가 '선발 인원 확대'라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학과별로 고정된 기준없이 매 학기 유동적으로 선발 인원이 변경됨에 따라 학생들이 체감하는 기회의 희소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지원 수요가 높은 학과일수록 경쟁률이 치솟는 반면 수요가 적은 학과는 상대적으로 여유있게 선발되는 등 기회의 분배 역시 불균형하게 작동하는 경우도 지적됐다. B씨(동유럽·헝가리)는 "헝가리어 전공처럼 해당 국가에 가려는 수요가 많은 학과는 내부 경쟁이 치열하다"며 "보통 1~2명 정도만 선발되다 보니 준비를 하다가도 어차피 안될거라는 생각이 들어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형식적인 학과별 선발이 공정에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론 기회 자체가 적기 때문에 공정함이 의미 있게 작동하지 않는단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경쟁률 및 미달 여부와 같은 지원 관련 데이터(Data)는 현재 내부 방침에 따라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해외 교류 프로그램 △교환 △복수학위 △7+1 프로그램 지원자들은 이수완료 학생들의 △개인 소감 △선발 여부 △과제 진행 상황 후기 등이 기재된 귀국 보고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쟁률과 미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듯 지원자의 수요와 공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에 일부 교류 대학의 정원 미달 현상이 발생해 학생 지원율 감소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B씨는 "지원 시 기본적인 정보조차 알 수 없다는 점이 아

쉬웠다"며 "준비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 학생들이 지원을 망설이게 되고 결국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교팀은 "해당 정보가 매 학기 지원자들의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공개 하더라도 다음 학기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며 "특히 대학별 1~3을 선발하는 영어권 교환 프로그램의 경우 특정 학기에 국한된 일시적인 현상으로 경쟁률이 높아지거나 미달이 발생해 다음 학기 지원자들에게 오히려 왜곡된 정보가 될 수 있어 앞으로도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해외 교류 프로그램의 학점 인정 제한에 대한 문제다. 국교팀 홈페이지에 따르면 모든 교류 프로그램은 방학·휴학 기간 내 △국내 △해외 계절학기 △해외연수 등 모든 교류 프로그램이 최대 6학점까지만 인정이 된다. 그러나 해외연수 기간 중 △48시간 이상 수업 이수 시 3학점까지 △96시간 이상 이수 시 6학점까지 각각 인정 가능하나 학과 내규 및 학과장의 승인에 따라 실제 인정 학점은 더 적을 수 있다. 문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학점 인정이 아예 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 방학 계절학기 프로그램은 총 수업 시간이 48시간에 미치지 못해 학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학생들은 학점 없이 교류 활동만 수행하고 돌아와야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 같은 제한된 학점 이수 조건은 타대에 비해 졸업학점이 큰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C씨의 경우 "비용을 내고 단기 연수를 다녀왔음에도 학점 인정 한도가 낮다"며 "해외 경험을 쌓고 싶어도 학점 인정이 제한적이라 학점 관리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 ◆나아가야 할 방향

위와 같은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은 선발 인원 확대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일례로 중앙대학교의 경우, 2025학년 2학기 기준 509개의 해외 대학과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우리학교 국교팀 관계자는 "학생들의 선호 지역과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넓히기 위해 국교팀은 매학기 신규 자매대학과의 협정을 체결하며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영어권 교환 프로그램 기준 파견 대학 수는 2023학년도 2학기 기준 65개에서 2025학년도 2학기 82개로 약 26%

증가해 많은 학생들이 국제 교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학교는 △지원 경쟁률 △미달 여부 △파견 인원 등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학생들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학교 국교팀은 "정량적인 정보 공개보다 학생이 자신의 목표와 역량에 따라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상시 상담 △설명회 △축제 참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동적인 학교별 지원 가능 인원으로 인해 겪는 학생들의 불편을 고려하더라도 투명한 정보 제공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실제로 경희대학교의 경우 △대학 △분기별로 경쟁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매 학기 선발 결과 공고문을 통해 학생들과 경쟁률과 미달 여부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학점 인정 제도 역시 개선이 요구된다. 단기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시간'이란 단일 요소로 형식적 시간 기준만을 적용하기보다 실제 교육 내용의 질과 성취도를 평가해 학점과 장학금이 부여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현재 방학 단기연수나 해외 계절학기 등에서 최대 인정 학점 수에 한계가 있고 동일 기관·언어권에서의 연속 이수마저 일부 제한됨에 따라 관련 제도의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 국교팀은 "해외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 부분은 학과 별 내규에 따른다"며 "각 학과별 해외 파견 대학의 △시수 △이수 학점 △커리큘럼(curriculum) △학점 등이 다르고 귀국 후 시험을 봐야만 하는 등 학과마다 인정 절차에도 차이가 있다"고 원인을 설명했다. 이어 "학생이 해외 파견 전 수강예정 과목을 학과에 확인 받고 학과별 공지사항 및 내규를 확인해 이를 잘 숙지하고 가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통합적 조율 △학과별 자율성 △학생의 준비 태도 △행정 부서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데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보다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선 제도적 기반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며 관련 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제도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문적 성과와 행정적 신뢰가 함께 축적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최소윤 기자 09soyoony@huf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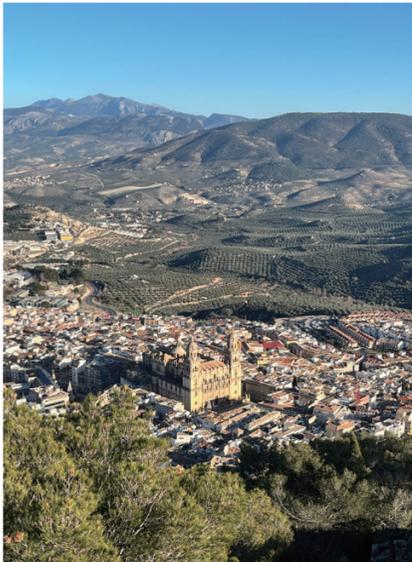
시대를 읽다. 미래를 열다  
**HUFS만의 혁신**  
HUFS의 글로벌 경쟁력에 첨단융합학문을 더해  
학생의 꿈과 성공을 위해 나아갑니다  
Come to HUFS Meet the World  
https://www.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평화롭고 조용한 시골 하엔

지난해 9월부터 5달간 나는 스페인 남부 지방에 있는 하엔(Jaén)에서 공부했다. 이미 스페인에 가기 전에 과테말라(Guatemala)에서 중남미 스페인어를 배운 경험이 있어 다른 종류의 스페인어 공부와 관광지가 아닌 곳에 머물기 위해 비교적 시골인 하엔을 택하게 됐다. 내가 스페인에 도착했을 당시 스페인은 여름이 저물어가고 가을이 오고 있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조금 추웠다. 교환학생이 끝나갈 무렵엔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워 민소매부터 얇은 패딩까지 다양한 옷을 현지

꿈 바가지를 씌우는 택시 기사들 때문에 곤란했던 적이 있어 만약 하엔을 방문해 택시를 탈 계획이 있다면 조심하라고 충고하고 싶다. 하엔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타파스(Tapas)를 파는 식당들이 주로 있어 약속이 있는 날이 아니면 나가지 않고 주로 집에서 플랫메이트들(Flatmate)과 저녁을 만들어 먹었다. 주변에 한식당이 없어 주로 스택볶음 탕스된장찌개삼겹살과 같은 음식을 해 먹었다.

하엔은 젊은 세대나 관광객들이 적기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40대 후반의 부모 세대와 조부모 세대가 살아가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편이다. 자주 여행을 다닐 계획이라면 공항에 가기 위해 주변 대도시까지 나가야 하니 번거로울 수 있으며 가게 되더라도 장시간 기차나 버스를 타야 하니 피곤하기도 하다. 하지만 하엔은 대도시들과 달리 생활 속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아 스페인어를 배우는 데



에서 사야 했다.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질 땐 친구들과 불바르(Bulevar) 공원에서 피크닉(picnic)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성 캐서린 성(Cruz del Castillo de Santa Catalina) 전망대에서 작아진 하엔과 도시를 둘러싼 올리브농장을 바라보곤 했다. 가끔은 에라스무스(Erasmus) 활동에 참여하여 주변 도시들을 여행하거나 소모임들에 참석하기도 했다.



하엔은 시골이다 보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부분의 식스당(카페)이 문을 닫아 피크닉이나 집에서 쉬는 게 아닌 이상 할 일이 없었다. 작은 도시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었다. 다행히 하엔 플라자 아울렛(Jaen plaza outlet)이나 디아 마트(Dia mart)는 문을 닫지 않아서 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다. 교통수단의 경우 주로 삼견거나 하엔 시청에서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버스를 타거나 나스파이드 택시(Pide Taxi)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활용해 택시를 타곤 했다. 가

하엔에 가기 위해선 말라가(Malaga)나 마드리드와 같은 대도시에서 렌페(Refne)나 버스를 타야 한다. 버스를 타고 펼쳐진 넓은 올리브밭을 보면 하엔의 대표 음식이 올리브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중에는 올리브밭과 올리브 오일 체험 프로그램도 있었다. 추가로 올리브 오일을 하엔에서 구매하고자 한다면 엘 코르테 잉글레스(El Corte Ingles) 백화점에서 사기 보다는 현지 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는 것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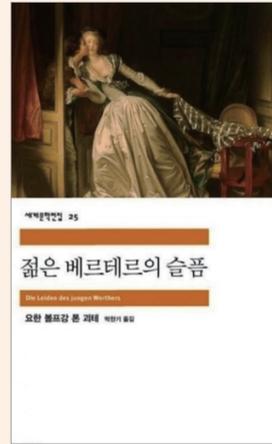
에 집중할 수 있고 다들 바쁘게 살지 않아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나는 하엔에 있을 당시 작은 도시여서 할 게 없다고 불평하곤 했다. 그러나 귀국 후 다시 생각해보니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는 여유가 많았고 그래서 오히려 나 자신을 돌볼 수 있었던 도시였던 거 같다. 바쁘게 살아가는 한국과는 다르게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좋아하는 운동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해 먹으며 살아가 수 있었던 도시로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박애진(통번역 · 스페인 23)

## 독일

###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슬픔이란 용기 -



과거 1770년대, 한 청년이 남긴 편지가 유럽 대륙을 뒤흔들었다. 이는 주인공 베르테르(Werther)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들로 괴테의 책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실려있다.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베르테르는 시골 마을에서 롯데(Lotte)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롯데는 이미 약혼자가 있는 상태다. 베르테르는 감정을 포기하지 못한 채 현실과 괴리된 사랑 속에서 점차 스스로를 소진해 가고 끝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그의 고백은 결국 '감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귀결된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단순한 연애소설이 아니다. 이 작품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용기인가 무책임인가"란 물음을 던지며 이성과 절제의 가치를 중시하던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에 정면으로 맞선다. 베르테르는 감정을 삶의 본질로 받아들이며 내면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는 사회가 규정한 적정한 감정의 경계를 넘어서고 자신의 슬픔을 끝까지 견딘다. 그런 점에서 베르테르의 비극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감정의 존엄에 대한 선언이기도 하다. 그는 세상의 질서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감정에 끝까지 책임을 지는 인물이다.

오늘날 우린 감정에 익숙한 시대를 사는 듯 보인다. SNS는 매일 수많은 감정의 파편을 쏟아내고 공감과 연대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여겨진다. 그러나 정작 깊은 감정은 '과하다'는 이유로 조롱받고 슬픔은 '약함'으로 간주된다. 분노는 "너무 예민하다"는 말로 무력화되고 고통은 "자기 연민"이라며 가볍게 흘려보내진다. 이처럼 우린 감정이 어느 선을 넘지 않길 요구받는다. 베르테르의 고백은 이에 대해 조용히 반문한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감정이 단지 사회적으로 규정된 사적인 감상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언어의 가능성을 말한다.

베르테르는 끝내 원하던 비를 얻지 못했고 누구의 인정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사라졌다. 그러나 자신만은 끝까지 속이지 않았다. 그에게 사랑은 타인과 관계가 아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흔히 말하는 '이성적인 선택'을 하지 못한 그였지만 그 안에 타협하지 않는 진실이 존재했다. 감정을 외면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뎠다는 사실만으로도 베르테르의 고백은 우리에게 여운을 남긴다.

세상은 때로 감정을 사치라고 말한다. 하지만 진짜 사치는 어쩌면 감정을 외면한 채 사는 삶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끝까지 마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향한 가장 조용한 저항이자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일 수 있다. 감정은 약하지 않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다.

김민서 기자 09kimminseo@hufs.ac.kr

# 국제지역 전문가 양성의 요람 국제지역대학원 2025학년도 후기 2차 모집

## 1. 국제지역대학원 모집

◎ 석사학위과정 / 박사학위과정 / 석·박사 통합학위과정 모집 전형 일정

구분	후기 2차 모집
원서작성	원서작성: 2025. 5. 20.(화) ~ 5. 29.(목)
전형일	2025. 6. 14.(토)
합격자 발표	2025. 6. 30.(월) 예정

\*온라인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온라인 입학설명회 세부 안내는 추후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인.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 특징

- 가. 다양한 장학금 제도
- 나. 유엔평화대학 이종학위 프로그램 운영(국제학과, 한국학과, 중남미학과, 유럽연합학과)
- 다. 3+1제도 시행(선발자에 한하여 재학 중 1학기는 해외에서 학점취득)
- 라. 폭넓은 다양한 지역학, 국제학 과목 개설
- 마. 졸업 후 많은 동문들이 국제기구, 공공기관 국제협력실, 대사관, 국제 연구기관 등에서 국제지역 전문가로 활약 중

◎ 문의처: 02)2173-2448, 2449, 2434 / Email: [hufgsias@hufs.ac.kr](mailto:hufgsias@hufs.ac.kr)

-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s://gsias.hufs.ac.kr>

## 2.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모집

◎ 모집: 석사학위과정(4학기)

학 과 (전 공)	학 위
국제지역전략학과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국제지역학석사, 경제학석사

## ◎ 모집일정

구분	후기 2차 모집
원서작성	원서작성: 2025. 5. 20.(화) ~ 5. 29.(목)
전형일	2025. 6. 14.(토)
합격자 발표	2025. 6. 30.(월) 예정

\* 온라인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 ◎ 특징

- 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출신 교수진 초빙
- 나. KOTRA의 통상전략 및 지역통상 현안 분석을 기반으로 국제지역대학원의 고유가치인 지역학 접목
- 다. 통상환경 + 실무이론 + 지역별 심화 연구를 아우르는 실무 통상 전략가 양성을 목표(커리큘럼 방향은 추후 변경 가능)
- 라. 졸업 시 학위기와 함께, 별도로 KOTRA 사장 명의의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수료증 수여
- 마. KOTRA 현지 무역관 연계 단기 현장학습 추진
- 바. GBC(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턴트, 민간 1급) 자격증 연계

◎ 문의처: 02)2173-2448, 2449, 2434 / Email: [hufgsias@hufs.ac.kr](mailto:hufgsias@hufs.ac.kr)

-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s://gsias.hufs.ac.kr>



# 청년 금융이해력 부족, 실질적 금융 교육이 필요할 때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2024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청년층의 금융이해력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금융이해력 부족 현상은 지난 2022년부터 꾸준히 대두된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청년 금융이해력 부족의 이유로 △경제·금융 과목 선택 환경의 문제

경제·금융 관련 수업의 부족△디지털 금융의 전환 등을 제시했다. △청년 금융이해력 부족의 현황△청년 금융이해력 부족의 원인△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청년 금융이해력 부족의 현황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대~70대를 대상으로 한 '2024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70대 다음으로 20대 청년층의 금융이해력이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20대 청년층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금융이해력 점수는 62.6점으로 지난 2022년에 비해 1.6점 하락했으며 전 세대 평균인 65.7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금융 행위 부문에선 전 연령대 중 20대 청년층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재무 상황 점검 및 장기 재무 목표 설정 항목에서 지난 2022년 같은 조사에 비해 각각 22.6점 및 11.9점 하락해 전 연령대 평균을 하회했다. 이는 20대 청년층의 경우 실생활에서 금전 관리와 금전 계획 수립에 취약하단 점을 의미한다. 금융 지식 및 금융 태도 부문에서도 각각 73.3점과 50.8점을 기록하며 20대 점수는 전 세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나 △돈은 쓰기 위해 존재한다 인식△미래보다 현재 선호 성향△저축보다 소비 선호 성향이 모두 20대 청년층에서 두드러지면서 금융 태도 내 모든 항목에서 전 연령층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는 20대 청년층이 규모 있는 금전 관리보다 소비에 집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디지털(Digital) 보안 민감성에 관해 묻는 '디지털 금융이해력' 분야 역시 44.8점으로 평균보다 낮았다. 이는 디지털 금융의 활용도가 높은 청년층이 정작 디지털 금융 보안에 대해선 둔감하단 점을 시사한다.

청년층의 금융이해력 부족은 청년층의 과도한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나 재무 상황 점검과 장기 재무 목표 부채 시 당장에 필요한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무리한 채무를 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청년 미래 삶을 위한 자산 실태 및 대응 방안'에 따르면 부채 보유 청년들의 평균 부채액은 약 1억 5,500만 원에 달했다. 청년 가구 부채 역시 지난 2012년 대비 지난 2021년엔 2.6배로 증가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보고서에선 "주거 목적이 아닌 부동산 및 금융자산 투자를 위해 부채가 늘어나는 현상이 보인다"며 "빚을 내서 투자할 시 향후 자산 감소 및 부채 증가로 사회적 약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 ◆청년 금융이해력 부족의 원인

청년 금융이해력 부족의 주된 원인은 실용성 있는 금융 교육의 부재다. 우리나라 현재 고등학교 때부터 금융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융이해력을 높이는 데 부족함이 많아 보인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선 경제 관련 교과목이 △경제△금융과 경제생활△인간과 경제활동으로 구성돼

있으나 경제 과목은 금융 관리와 같은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보다 거시 경제 및 국제 경제 등 거시 경제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인간과 경제활동 역시 의사결정 원리 및 경영 방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청년들의 실질적인 금융 관리를 돕기 어렵다. 금융과 경제생활의 경우엔 그나마 △수입과 지출△신용과 위험 관리△저축과 투자 등의 실질적 금융 교육에 도움을 주는 목차로 구성돼 있으나 필수 교과가 아닌 융합 선택 과목으로 분류되면서 큰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입시 위주 교육 환경에선 변별력이 낮은 절대 평가 과목에 대한 수요가 낮아 강의 자체가 열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브릿지경제에 따르면 사회과 교사 A 씨는 "융합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 방식이기에 성적에 변별력을 주지 않아 학생들이 듣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 수가 적어지면서 경제 및 금융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역시 이유로 지적된다. 실제로 이번 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사회탐구로 경제 과목을 선택한 비율은 전



체 응시자 대비 1.3%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고등학교 내에서 선택과목의 개설은 최소 15명 이상이 특정 과목을 선택해야 이뤄지는데 수능 선택과목 비율에 비춰봤을 때 다른 입시 위주의 사회탐구 외에 경제 및 금융 과목이 개설될 확률은 매우 낮단 것이다.

경제 및 금융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의 부족 역시 경제 및 금융 교육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해 4월 1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회과 교사들이 자신의 전공이 금융과 맞지 않아 금융 과목 도입을 꺼리는 것이 발견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의 수 역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대신문에 따르면 이미영 대구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는 "경제·금융 교과는 수업 내 용도 난도가 높아 수업할 수 있는 교사가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금융 환경으로의 전환이 청년층의 금융이해력 부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의 디지털화로 인해 금융 상품으로의 접근은 용이해졌지만 그와 동시에 디지털 금융 보안에 관한 이해력도 저하된 것이다. 실제로 우리학교 B 씨는 "온라인 뱅킹(Online Banking) 등 디지털(Digital) 금융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자주 이용해 이용 약관을 굳이 읽지 않아도 되다 보니 금융 보안과 관련된 이용 약관이나 거래 조건 등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디지털 금융의 사용 빈도가 높아져 편의성이 증대된 만큼 올바른 금융 정보 이해를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하게 된 것이다.

## ◆나아가야 할 방향

청년 금융 이해력 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시기 금융 교육의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본 지점과 학교가 결연을 맺어 금융 교육을 지원하는 1사 1교 금융 교육 내실화 및 금융과 경제생활의 안착을 위해 힘을 쏟을 것

설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실용 금융 강좌 개설에 신청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생 위한 실용 금융' 교재를 지원하는 등 대학 내에서 실용 금융 강좌가 열릴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청년 개인의 금융 이해력 함양을 위해 '2024 국민 금융이해력 보고서'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1:1 재무 상담 시행 및 'e-금융 교육 센터(Center)'를 활용한 금융 교육 콘텐츠(Contents)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20대 청년층을 위한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금융 교육 역시 활성화 돼야 한다. 우리학교의 경우에도 흡스어빌리티(Hufsability)를 통한 금융권 취업 특강 등의 비교과 프로그램(Program)은 활발한 편이지만 금융 교육 자체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학교 차원에서 실질적인 금융 지식을 다룰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해외의 금융 교육 사례 역시 참고해 볼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초등학교의 사회 교과에 금융 교육을 포함해 지난 2014년엔 필수 교과목으로 중·고등학생을 위한 금융자산 관리와 소비자 권리 및 책임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3년부터 대국민 금융 교육 프로그램 '머니 센스(Money Sense)'를 구축하여 청소년 시기부터 금융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금융 교육을 청소년 시기부터 실시하고 있다. 영국 연방정부는 초등학교 때부터 가정의 수입과 지출 및 돈의 역할과 보관법 등 일상생활에서 이해하기 쉬운 실용적인 방식으로 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 진출 전 청소년 시기엔 △부채의 종류와 활용 △연금 제도 △임차 계약 과정 등 독립에 필요한 실질적 금융 지식 함양을 위해 힘쓰고 있다.

청년들의 건강한 금융 생활을 위해 실용성 있는 금융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들이 적절한 금융이해력으로 건강한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기대한다.

밝혔다. 청소년을 위한 체험형 금융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일례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7일~23일 '2025 OECD 국제 금융 교육 주간'을 개최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형 교육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거래 및 금융 진로 체험교육△체험형 보험 교육△초등학교 교사 참여 보험 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실질적 금융 체험을 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청년층을 위한 금융 교육 역시 필요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25 금융 교육 활성화 세미나'에서 "학교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저축△주택 계약△투자 등 중요한 재무적 의사결정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해 12월 '원스톱(One-Stop) 청년 금융 컨설팅센터(Consulting Center)'를 마련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이 △기초 재무 진단△신용·부채 관리 컨설팅△재무 컨

# 사라지는 땅, 드러나는 도시의 민낯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교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중이던 30대 남성이 지반 붕괴로 인한 추락 사고에 휘말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른바 '싱크홀(SinkHole)' 사고다. 해당 사고는 도심의 지하 설계 및 관리의 취약점과 그로 인한 도시 환경에

서의 안전 문제를 깊이 고민하게 만든다. △도심 속 싱크홀 발생 현황△도심 속 싱크홀 원인△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도심 속 싱크홀 발생 현황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교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중이던 30대 남성이 지반 붕괴로 인해 추락하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싱크홀은 △가로 20m△깊이 30m△세로 20m에 이르는 대형의 공동(空洞)이었으며 수색에 투입된 소방 당국은 “쏟아진 토사와 얽힌 공사 장비로 인해 수색이 매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지반 침하를 넘어 도심 지역의 지반 관리 체계 전반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오토바이로 배달하거나 차량을 운전해 생계를 이어가는 시민들에게 싱크홀은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는 복병이다. 지난 3월 27일 이코노미뉴스(EconomyNews)와의 인터뷰에서 한 배달 기사는 “도로 위에서 10시간 이상 보내는 배달 기사에게 싱크홀 사고는 재앙이나 다름없다”며 “사고 전에 징조가 있었던 이야기도 언론 보도를 통해 들었는데 이런 위험 지역을 사전에 경고 해 주는 체계가 조속히 마련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도교통부(이하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연평균 400건이 넘는 크고 작은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싱크홀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총 957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경기도(197건)△광주(122건)△부산(85건)△서울(81건)△전북(70건)△강원(68건)△대전(66건) 순으로 싱크홀이 많이 발생했다. 주요 발생 원인은 △하수관 손상(446건)△다짐 불량(171건)△굴착공사 부실(82건)△기타 매설물 손상(64건)△상수관 손상(39건)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제2차 국가 지하 안전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새로 수립하며 향후 5년간의 지하 안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 ◆도심 속 싱크홀 원인

앞서 언급한 통계에 따르면 오늘날 싱크홀 문제의 발생 원인으로 △하수관 손상(876건·42%)△다짐 불량(350건·16.8%)△상수관 손상(263건·12.6%) 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싱크홀 사고의 원인으로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인위적인 지하 환경 변화와 구조적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선 노후 지하 매설물에서 비롯된 토사 유실 문제가 지목된다. △가스관△상하수도관△통신선 등 주요 도시 기반 시설은 대부분 20년 이상 된 경우가 많고 일부는 50년이 넘는 곳도 있다. 이들 관로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누수가 장기간 방치되며 지하 토양을 조금씩 깎아내고 이로 인해 생긴 빈 공간이 지반을 지탱하지 못해 붕괴되는 것이다.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1년간 서울에서만 1,100건이 넘는 상수도 누수가 발생했다. 특히 도심지 고밀도 지역에서 발생한 누수의 상당수는 도로 합몰과 연관돼 있었다. 지난 3월 26일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싱크홀 대부분은 지하관로에서 토사가 빨려 나가며 생긴 공간이 위에서 눌리는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붕괴되는 구조다”며 “하지만 이런 공극(空隙)은 육안으로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전 탐사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후 지하 매설물로 인해 발생한 땅꺼짐 사고의 경우 초기 현장조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싱크홀로 인한 피해를 키우는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28일 국토원 관계자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노후된 상수관으로 인해 땅꺼짐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초기 현장 조사가 실행되기 전에 현상이 복구되거나 신고가 늦게 접수되는 사례가 많아 조사하기 전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원인은 무분별한 지하 개발이다. 특히 대도시에선 △공동구\*△대형 상업시설 건설설치△지하철 연장 등으로 지하 공간의 사용률이 높은 편이다. 문

제는 이러한 개발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사전 지반 조사 및 지하구조물 간섭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던 점이다. 지난 2022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반 정보 통합 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 공사장의 42%가 인근 지하 시설물의 위치나 심도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지난 2023년 3월 26일 이정훈 한국 지반 환경 기술 협회 부회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하 개발을 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지반 정밀 탐사와 GPR\*\* 등이 예산과 시간 문제로 생략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특히 민간 시공사들은 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을 후순위로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전국 지자체 중 지반 레이더 탐사 장비를 보유하고 정기 운용하는 곳은 30% 미만에 그쳤다.

## ◆나아가야 할 방향

국토부는 지난 2014년 서울 송파 석촌 지하차도 지반 침하 사고를 계기로 민·관 합동 특별팀을 구성해 같은 해 12월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세계 최초의 '싱크홀 관련 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제정돼 2018년부터 시행됐다. 해당 특별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사후 처리에만 의존했던 싱크홀 사고를 사전에 미리 방지한다는 게 골자다. 지난 2015년 3월 15일 이인환 UGS(UnderGround Safety) 융합연구단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준에 지반 침하가 많이 발생했던 △도로 정보△상하수도 정보△하수관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DataBase)로 만들 수 있다”며 “이를 분석해 어디가 위험한지 미리 확인하고 실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영국은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한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나라 중 하나로 지하 시설물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지하 개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도입했다. 특히 런던(London)과 같은 대도시에선 지하 개발이 급증하면서 지하 공간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가스△전력△통신 등의 주요 시설이 상호작용하는 지하 공동구가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 지반 안정성을 필수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또한 지하 개발 시 반드시 사전 지반 안정성 분석을 요구하며 공사 전 해당 지역의 지하 시설물의 위치와 심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단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반 안정성을 평가하는 정밀 탐사가 필수적으로 이뤄지며 모든 대형 공사는 이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영국 정부는 지하공간 안전을 위한 법적 의무를 명문화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원인 분석과 책임 소재 파악을 철저히 진행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싱크홀 사고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관리 소홀과 투자 지연에서 비롯된 인재(人災)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더불어 구조적 원인에 맞춘 사전 예방과 체계적 관리가 선행돼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예방 가능한 도시 재난으로서의 싱크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기술적 대응과 함께 시민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안전망을 강화해 나아가야 하며 더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

\*공동구: △가스△전력△통신 등 지하 공동관로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하 구조물이나 지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기술로 싱크홀 발생 원인을 탐지하고 분석하는 데 활용돼 고주파 전자기파를 이용해 지하에 있는 물체나 공극을 감지하는 방법

정소희 기자 09sohee@hufs.ac.kr

# www.사사한줄토막.com

## 정치 첫 번째 공약 '경제 성장', 접근은 달라

지난 14일 각 정당 대선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 공약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이하 이 후보)와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이하 김 후보) 모두 경제 성장을 1순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불공정을 해소하는 '공정 경제'를 내건 반면 김 후보는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에 맡긴 '자유 주도 성장'을 키워드(Keyword)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대기업의 반칙 행위를 막아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익편취 근절△시세조종 근절에 따른 공정한 시장 질서 창출△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반면 김 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이자 '일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자유경제 혁신 기본법'을 제정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약속했다. 또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국내 규제를 깨는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한 단 공약을 내놨다.

## 사회 교사 중 58%는 아직 고민해, 슬픈 스승의 날

지난 14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이 지난달 23일부터 이번 달 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9점으로 나타났다. 그중 응답자의 58%는 최근 1년 이내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 있다고 답했다. 교직에 '만족한다' 응답은 32.7%로 '불만족한다' 응답은 32.3%로 나타났다. 교사란 직업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있는지 묻는 질문엔 64.9%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교권 침해 경

험을 묻는 항목엔 응답자 중 56.7%가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 있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교직을 그만뒀야 할지 고민한 이유론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이 77.5%로 1순위에 꼽혔다. 2순위의 이유는 '낮은 급여'로 나타났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현장 교사들의 이탈을 막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제 제조업 고용 취업자 수 또 줄어, 관세 영향 어디까지

통계청이 지난 14일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며 제조업 취업자 수가 6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2만 4천 명이 줄어 지난 2019년 2월 이후 6년 2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감소 폭 역시 지난 1월 5만 6천 명△2월 7만 4천 명△3월 11만 2천 명△4월 12만 4천 명으로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트럼프(Trump)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대외 불

확실성의 확대가 취업자 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알루미늄△철강 등 품목별 관세와 기본 관세 10%가 부과된 지난달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6.8% 급감했다. 관세 영향이 장기화되면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 국내 고용 상황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된다.

## 국제 트럼프 대통령, 10년 만에 시리아 제재 해제

지난 14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하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수도 리야드(Riyadh)에서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아메드 알샤라(Ahmed Hussein al-Sharaa) 시리아 임시 대통령을 만났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알샤라 임시 대통령에게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의 관계 정상화 합의인 아브라함(Abraham)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백악관에선 알샤라 대통령이 “미국 기업이 시리아의 가스 및 석

유 분야에 투자하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과 시리아 간 정상적 관계를 복구하기 위한 첫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시리아에 대한 제재 해제를 공식 선언했다.

#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기술과 저작권 문제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이미지 생성 도구가 대중화되며 특정 작가의 화풍이나 예술 양식을 모방한 인공지능 이미지(Image)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브리 스타일(Ghibli style)'로 재구성된 이미지들이 저작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며 창작과 모방의 경계가 점점 흐려

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관련 법적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기술이 기존 저작권 체계에 던지는 쟁점과 창작 개념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알아보자.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Q1. 최근 상용화되고 있는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기술의 핵심 작동 원리는 무엇이며 이러한 기술이 전통적인 창작물 생산 구조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기술이란 인간이 입력한 텍스트 명령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대표적으로 자기회귀 모델(Model)과 디퓨전(Diffusion) 모델 같은 딥러닝(Deep learning) 기반 기술이 있습니다. 자기회귀 모델은 시퀀스(Sequence)\*를 기반으로 이전 정보로부터 다음 정보를 예측해 결과물을 점차 완성해 나가는 것이고 디퓨전 모델은 먼저 선명한 이미지를 점점 흐릿하게 만든 뒤 그 흐릿한 상태에서 원래 모습을 되살려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고해상도 이미지나 창의적인 변형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전통적인 창작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과거엔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데 많은 시간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했지만 인공지능은 비전문가도 간단한 명령어 입력만으로 고품질의 시각물을 생성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창작의 민주화를 이루는 동시에 기존 예술가들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Design)△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회화 등 시각예술 분야에서 이러한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창작의 '도구'로서 인공지능의 위치는 점차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 Q2.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셋(Data set)\*\*에 기존 예술작품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무단 학습 행위는 법적으로 어떤 쟁점을 발생시키고 있나요?

인공지능 모델이 고도화되기 위해선 대규모의 이미지 데이터셋을 필요로 합니다. 이 데이터엔 종종 작가들이 제작한 그림△사진△영화△스틸컷(Still cut)△웹툰(Webtoon)△일러스트레이션 등 저작권 보호 대상 이미지가 포함됩니다. 이 경우 원작자의 동의 없이 수집·활용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판단은 조금 복잡합니다. 먼저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일반적으로 사후 70년이기 때문에 고고흐(van Gogh)△렘브란트(Rembrandt)△미켈란젤로(Michelangelo) 등과 같은 고전 화가의 작품은 자유롭게 학습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작가나 현대 작가의 작품은 여전히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학습한 뒤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한다면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 이용' 개념이 중요한데 학습 자체가 공익적 목적이거나 생성된 결과물이 원작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면 법원이 공정 이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공정 이용'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 Q3.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가 특정 화풍이나 작품을 모방한 사례 중 실제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나요?

대표적인 사례는 고품질 이미지와 영상을 제공하는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Content Platform) 게티 이미지(Getty images)가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기업인 스태빌리티 에이아이(Stability AI)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 게티 이미지는 자사의 수많은 저작권 보호 이미지가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엔 워터마크(Watermark)\*\*\*까지 남아 있는 경우도 있었기에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풍'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점입니다. 저작권은 '발상'이 아닌 '표현' 자체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반 고흐의 화풍처럼 굵은 붓터치와 강렬한 색감의 스타일을 모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흐의 작품 속 특정 장면이나 구도를 거의 그대로 재현한다면 복제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Q3-1. 이러한 모방 이미지가 '2차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선 어떤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상 '2차 저작물'은 원작에 기반하되 독자적인 창작성이 가미된 새로운 창작물을 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인간이 창작 행위에 실질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이 단독으로 만든 어떤 이미지는 법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인공지능에게 단순한 명령어만 입력한 수준이라면 그 결과물은 2차적 저작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며 원작자에게 법적 권리가 여전히 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인공지능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수정하고 재창작했다면 그때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Q4. 현행 우리나라 저작권법 체계에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의 권리 귀속은 어떻게 판단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제도상 공백이나 규범적 논의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 저작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완전히 자율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공지능 생성물에 아무 권리도 생기지 않는 건 아닙니다. 사용자가 인공지능을 단순 도구로 삼고 그 과정에서 창의적인 △기획△선택△편집 등의 인간적 판단이 개입했다면 해당 결과물은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일정한 보호를

부여하되 인간 창작물과는 다른 범주의 권리 체계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컨대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저작권이 아닌 저작인접권\*\*\*\* 수준의 권리를 인정하거나 5년에서 10년의 단기 보호를 설정하는 등의 방안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 Q5.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기술의 창작 참여가 △예술의 본질△예술가의 정체성△창작 행위에 어떤 윤리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나요?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기술은 인간이 가지는 창작 주체성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술은 본래 창작자의 △감정△경험△철학이 담긴 결과물로 간주돼 왔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만든 이미지는 인간의 정서나 맥락 없이도 외형상 '작품처럼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예술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윤리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이 인간 창작물처럼 보이고 소비자들이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창작자의 정체성과 창작 노동의 가치를 흐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술계에선 인공지능 활용 여부의 투명성 확보와 창작자 표시의 명확성이 중요한 윤리적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Q6. 인공지능 이미지 기술을 이용해 상업화를 시도하는 다양한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존 예술가 및 콘텐츠 창작자들의 △수익 구조△직업 안정성△창작 동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술가들은 현재 인공지능으로 인한 생존 불안정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이나 일반 소비자들이 디자이너(Designer)를 고용하는 대신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도구를 활용해 빠르고 저렴하게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하면서 일부 작가들은 실질적인 일거리 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고(Logo) 디자인△북커버(Book cover)△웹툰 표지△프로듀싱(Producing) 등 상업 분야에서 인공지능 대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인공지능 기술을 창작 도구로 활용하며 새로운 방식의 예술 활동을 시도하는 작가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공지능을 통해 시각적 실험을 확장하거나 제작 속도를 높이며 창작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위협인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예술가가 자신만의 표현 언어와 철학을 유지한 채 인공지능을 어떻게 도구화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Q7. 일반 이용자가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도구를 사용해 저작권 침해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활용했을 경우 해당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플랫폼 제공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책임은 이미지를 생성하고 배

포한 이용자에게 우선 귀속됩니다. 프롬프트(Prompt)\*\*\*\*\* 입력을 통해 특정 작가의 스타일이나 이미지 요소를 직접적으로 재현했고 그 결과물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했다면 이는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만약 그들이 불법 콘텐츠 생성 가능성을 알고도 방조하거나 해당 데이터를 적극 수집 및 제공했다면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아직 법적 판례가 충분하지 않기에 향후 법제화와 판례를 통해 구체적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 Q8.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앞으로의 저작권 제도는 창작자 보호와 기술 혁신 간 균형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발전과 창작자 보호 사이의 균형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단지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을 여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에도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되 그 보호 범위나 기간은 인간 창작물보다 제한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 창작의 동기를 보호하면서도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을 제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투명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생성물에 인공지능 사용 여부를 표시하는 등의 표기 의무 도입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소비자△작가 모두에게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시퀀스(Sequence): 순서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연속된 정보의 흐름  
 \*\*데이터셋(Data set):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모아 놓은 이미지와 텍스트 등의 자료  
 \*\*\*워터마크(Watermark): 무단 복제를 방지하거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이미지나 문서에 삽입하는 희미한 표시  
 \*\*\*\*저작인접권: 저작물을 전달 및 유통하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  
 \*\*\*\*\*프롬프트(Prompt): 인공지능에게 작업을 지시하거나 질문을 입력하는 명령어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 사람이 쓴 글의 가치

“이거 그냥 어차피 챗지피티(Chat GPT)에 물어보면 되잖아?” 친구가 툭 던진 말은 농담 같았지만 마음에 꽤 오래 남았다. 요즘은 과제 주제가 주어지면 가장 먼저 챗지피티에 입력한다. 요점 정리는 기본이고 논리적인 글쓰기와 보고서 초안까지 척척 만들어낸다. 처음엔 신기해서 썼고 이내 익숙해졌고 지금은 당연해졌다. 고뇌하며 쓰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정말 도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신문도 예전 같지 않다. 종이신문이 점점 줄고 나 포함 학보 기자들이 피땀 흘려 발행한 신문은 외대학보 칸에 수북히 쌓여 있다. 또 누군가가 집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는지 캠퍼스 곳곳에 홀로 남겨져 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도 늘상 바쁜 일상 속에서 제복만 대충 훑고 지나칠 때가 많다. 또 이전 모르는 것이 생겨도 교수님께 묻기보단 인공지능에게 질문하는 게 더 빠르고 편리한 것 같다.

이런 변화는 우릴 점점 더 빠른 정보의 소비자'로 만들고 있는 듯하다. 깊게 생각하고 천천히 꼼꼼히보다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손쉽게 얻은 정보에 만족하는 모습. 자극적인 장면과 중독적인 음악으로 만들어진 영상 자료를 주구장창 소비하며 편협한 알고리즘(Algorithm)에 갇혀 있는지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 그 결과 신문이나 글의 '깊이'와 '진실'은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다. 그리고 한편으로 요즘 신문들이 예전만큼 깊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정보 전달은 빨라졌지만 그 안에 진짜 '의미'가 담겨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빠르고 쉬운 대신 가볍고 얇은 글들이 넘쳐나는 시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에 어떤 글이든 쓸 수 있는 시대. 그 속에서 진심은 점점 희미해지고 그 빈 자리를 화려한 문장과 표면적인 정보가 채우고 있는 듯해 아쉽기만 하다.

△속도△정확성△효율성 모든 면에서 인간을 앞선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제 감정까지 흉내 낸다. 이쯤 되면 인간의 '글쓰기'란 행위는 어쩌면 너무 느리고 고돼서 비효율적인 선택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젠 인간이 굳이 글을 써야 할까?”라고 묻는 누군가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여전히 손으로 직접 써야만 하는 순간들이 있다고 믿는다. 즉 생각을 고르고 문장을 다듬고 다시 지우고 또 쓰는 고된 과정을 거쳐야만 전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물론 인공지능이 쓴 글은 매끈하게 잘 정리되었고 정확하다. 하지만 어떤 글은 정확함보다 주저함에서 비롯된다. “이 문장이 맞을까?” 혹은 “이 표현이 너무 감정적이지 않을까?” 등의 질문을 품고 문장 앞에서 머뭇거리며 쓴 글은 읽는 이에게 그 고된 흔적을 전한다. 인공지능은 절대 흔들리지 않지만 인간은 망설이고 흔들린다. 나는 그 순간에서 오는 울림이 있다고 믿는다.

기사를 쓸 때면 늘 책임감을 느낀다. 이 글을 누가 읽어줄까? 누군가의 생각을 건드릴 수 있을까? 가끔은 내가 쓰는 문장이 누군가의 검색창에 키워드 몇 줄로 요약될까 봐 두렵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진다. 단어를 고르고 사실을 확인하고 무엇보다 '진짜 내가 쓴 글'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 애쓴다. 물론 나도 인공지능을 이용한다. 요약도 맡기고 참고자료도 검색한다. 하지만 모든 문장은 내가 쓴다. 스내가 고민한 생각 스내가 살아 있는 시간 스내 말투를 실은 문장을. 내가 아니면 이 이야기는 세상에 없을 테니 지금도 계속해서 쓴다.

글을 쓴다는 건 어쩌면 “나는 존재한다”는 조용한 외침일지도 모른다. 말처럼 빠르지는 않지만 더 오래 남는다. 글에는 시간과 고뇌가 스며있다. 쓸모가 아닌 의미를 위해 나는 지금 이 순간도 그 의미를 찾아 한 글자씩 이어간다. 정보를 요약하는 건 인공지능이 잘할지 모르지만 마음의 결을 전하는 일은 아직 인간의 몫이다. 언젠가 그것마저 대체될 날이 오더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써 내려가야 할 문장이 있다고 믿는다. 오늘도 키보드를 두드리며 자문한다. “이 글을 인간이 썼다는 게 왜 중요할까?” 그리고 조심스럽게 답한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 흔들림이 담긴 문장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나경 기자



### [책 '무너진 세계에서 꿈꾸기'을 읽고 말의 무게, 침묵의 책임]

‘무너진 세계에서 꿈꾸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얼마나 쉽게 균열되고 무너질 수 있는지 알려준다. 저자는 △나치 체제의 가해자△침묵했던 다수의 시민△홀로코스트(Holocaust)\* 생존자 등 다양한 인간 군상을 통해 전체주의가 어떻게 일상을 잠식하고 결국 사회 전체를 파괴하는지 입체적으로 보여주지만 단순히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떻게 인간은 인간에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는가?” 그리고 “내가 그 시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인가?”를 독자에게 묻는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은 ‘악마의 혀, 대중을 장악한 선동술의 대가—히틀러의 대변인, 요제프 괴벨스’였다. 괴벨스(Paul Joseph Goebbels)는 단지 히틀러(Adolf Hitler)의 홍보를 맡은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언어를 냉철한 전략의 도구로 삼아 대중의 감정을 조율했고 거짓을 반복함으로써 거짓을 믿음으로 탈바꿈시켰다. 분노를 선동하고 적을 설정해 증오하게 만들었으며 독재자의 권력을 사람들이 스스로 지지하도록 만들었다. 무엇보다 섬뜩했던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우발적인 선동이 아니라 철저히 체계화된 기획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라디오△언론△영화 등 당대의 유력한 매체를 장악해 비판적 사고를 봉쇄했고 그 결과 ‘생각하지 않는 대중’을 만들어냈다.

이 장을 읽으며 ‘말의 무게’라는 표현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다.

다. 괴벨스의 사례는 말이 때론 총보다 더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언어는 사람을 극단으로 몰아세우고 그것이 단지 감정의 분출이 아닌 사회적 전략으로 활용될 때 그 파괴력은 더욱 커진다. 만약 많은 이들이 침묵하지 않고 괴벨스의 언어에 맞서 ‘자기 언어’를 가졌더라면 역사는 지금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장을 덮으며 자문했다. △거짓을 진실처럼 말하는 목소리들 △타인을 향한 혐오를 정당화하는 언어△편을 가르고 적을 만들어내는 선동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 그리고 그 중 일부는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유포되기도 한다. 이 지점에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언론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가 아니다. 언론은 언어로 현실을 구성하며 때로는 한 사회의 방향을 결정짓기도 한다. 그렇기에 말의 힘을 경계해야 하며 동시에 침묵의 책임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말은 방향을 제시할 수도 파멸을 이끌 수도 있다. 그렇기에 ‘무너진 세계에서 다시 꿈꾸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그 도구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본다.

\*홀로코스트(Holocaust):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

이나경 기자 10leenageong@hufs.ac.kr

### [영화 '집없는 천사'를 보고]

### 일제 당시 영화는 '역사' 없이 말할 수 없다

비가 내리는 오후 흐릿한 흑백 화면 속에서 한 아이가 울고 있다. 최인규 감독의 1949년작 영화 ‘집없는 천사’는 그렇게 시작된다. 이 영화는 ‘일제강점기’란 무거운 시대의 공기 속에서 나에게 순수의 언어를 통해 말을 걸었다. 고아들의 순수한 눈망울을 통해 영화의 메시지가 전달됐기에 나는 이 영화가 그 시대의 참혹함을 잠시 잊게 해주는 휴머니즘(Humanism)을 이야기하는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영화가 끝난 뒤 나는 그 투명함 너머 정교하게 숨겨진 의미를 발견했다. 바로 식민지 권력이 얼마나 은밀하고 교묘하게 인간의 정신에 뿌리내릴 수 있는지를. 이 영화는 ‘구제’란 이름 아래 조선의 아이들을 황국신민으로 길들이는 ‘교화의 무대’를 충실히 재현한다. 방 선생이 세운 고아원은 피난처가 아닌 제국이 설계한 질서의 실험실이자 조선인의 미성숙한 국민성을 ‘일본적 가치’로 도색하는 정신적 공장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아이들이 그 억압에 스스로 적응해가는 과정이었다. 결말 장면에서 아이들은 일장기 앞에 모여 일본어로 총성의 맹세를 외친다. 교화는 완성됐고 그들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음에도 여전히 맑은 눈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순수와 세뇌가 겹친 모습이 소름 돋을 만큼 섬뜩하게 다가왔다. 또한 감독은 영화 속에 미세한 파열음들도 숨겨놓았다. 아이들이 함께 국수를 만들고 옛을 나누며 웃는 장면들은 제국이 그리는 이상적 공동체를 상징함과 동시에 조선인의 연대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조용한 불협화음이 화면 어딘가에서 분명히 울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최소윤 기자 09soyoon@hufs.ac.kr



### 1103호 학보를 읽고

### 도약의 계절

어느덧 1학기의 절반이 지나갔다. 유독 이번 학기는 일교차가 커서인지 몰라도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느낌이다. 학교는 푸른빛으로 뒤덮이며 초여름의 향기를 풍기고 있다. 그러나 교내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만연해 있다. 이에 이번 외대학보 1103호에선 △무전공 입학 전형△강의평가 운영 문제△챗GPT 사용 문제△불법체류자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4면에선 이번 2025학년도부터 신설된 무전공 입학 전형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제도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던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미흡한 학칙 제도△원활하지 않은 학생 자치 활동△전공 쏠림 현상 등의 문제점 또한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해당 제도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며 겪을 문제들은 이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에 따른 대처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5면에선 강의평가 운영 방식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강의평가는 성적 열람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임과 동시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창구다. 그러나 강의평가에 대한 결과가 실제 수업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아 학생들이 비판을 제기하고 있고 교수들 또한 부실한 강의 평가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기사를 통해 해당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이뤄졌으면 한다.

남우현(사회·정외 22)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7면에선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ChatGPT)의 사용에 대해 다루고 있다. 최근 많은 대학생이 챗GPT를 이용해 과제를 하기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챗GPT 사용을 둘러싸고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한다. 정보화 시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이 정보화 시대의 필수적 역량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으면서도 스스로 사고하는 방식을 제한해 학습 능력을 저하한다던 부정적인 의견도 공존한다. 학생들은 챗GPT를 올바르게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8면에선 불법체류자에 대해 다루고 있다. 최근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며 해당 문제가 조망되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우리나라 사회의 노동력과 인력을 담당하고 있던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존재가 불법이라는 범죄적 표현으로 낙인찍혀 사회적 구성원에서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현재의 불법체류자 정책과 인식이 개선돼야 할 때다.

외대학보 기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학내의 사안들을 조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1103호에선 이러한 노력을 꼭꼭 담아내어 우리들이 학내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를 폭넓게 인식할 수 있게 했다. 기자들뿐만 아니라 학내 구성원 모두가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협력한다면 보다 더 도약하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 1103호 학보를 읽고

### 봄의 틈에서

푸르름이 짙어지는 5월의 학교는 중간고사의 분주함을 지나 잠시 숨을 고른다. 새 학기의 설렘과 함께 시작했던 발걸음은 어느덧 익숙한 일상이 됐고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가늠해 본다. 부담과 기대가 공존하는 이 시점에서 외대학보가 비추는 우리의 현재를 성찰하고 남은 학기를 더욱 의미있게 채워나갈 지혜를 함께 모으고자 한다.

4면에선 무전공 입학 제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번 해부터 도입된 무전공 입학 제도는 학생 선택권 보장이란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공 쏠림 우려와 같은 미흡한 운영 체계들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통합 전형 모집생들은 학교 생활 전반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과방 이용이나 자치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등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학교와 학생회는 모든 입학생들이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학교에 잘 적응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신속한 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5면에선 우리학교 강의평가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봤다. 본 제도는 수업 개선 및 교육 질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지만 학생들은 성적 열람을 위한 형식적 절차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 외대학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3.3%가 “성적 열람을 위해 강의평가를 작성한다”고 답했으며 “53.3%는 평가 결과가 수업 개선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꼈다. 이런 괴리는 학생들이 평가의 실효성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게 하며 피드백(Feedback) 반영 여부의 불

투명성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위 제도가 진정한 교육 개선의 기반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학생 피드백의 실제 반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업 유형별 맞춤형 문항을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강의평가는 교육 혁신의 동력이 될 수 있다.

7면에선 대학생들의 챗GPT(ChatGPT) 이용 실태에 대해 조명했다. 챗GPT가 학습에 도움을 주는 편리한 도구는 분명하며 나 역시 논문 요약이나 문서 작성에 활용하며 이를 체감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사용은 △부정확한 정보 제공△사고력 저하△학업 윤리 문제와 같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이런 점에서 대학생들이 챗GPT 사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 많은 대학에서 기준과 규정이 부족한 현실이므로 구체적인 활용 교육과 명확한 참고 규정 제시가 시급하며 학생들 스스로도 비판적 판단력과 윤리 의식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외대학보 1103호는 우리 대학 공동체가 함께 풀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을 조명했다.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과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응기 있게 기사로 담아내는 외대학보의 노력은 우리 학교 변화의 소중한 동력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외대학보가 우리 공동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모두가 아름다운 봄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길 응원한다.

최소윤 기자 09soyoon@hufs.ac.kr

박대희(국제지역·중양아시아 22)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 일상 너머, 학생과 학교가 함께 걷는 변화의 길

국·부장 고정칼럼

평범한 하루가 흘러간다. 특별한 것 없는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학교란 공간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학생들과 교직원들 그들이 만들어내는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 오늘의 학교를 이루고 있다. 오늘은 그 평범함 속에 숨겨진 다양한 문제와 변화의 움직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4면에선 우리학교 외국인 유학생의 현황과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다뤘다. 유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언어 능력이나 생활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는 충분하지 않단 지적이 이어진다. △기초 생활 정보 접근성의 한계△지원 인력△학문 수행에 부족한 한국어 수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은 유학생의 실질적 학업과 생활 적응을 어렵게 만든다. 단순한 유학생 유치를 넘어 유학생이 학내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전 구성원의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5면에선 우리학교 해외 대학 교류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다뤘다. 현재 55개국 505개 대학과의 협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지만 △과도한 비용 부담△선발 인원 제한△정보 비공개△학점 인정 제도 미비 등 현실적인 제약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7+1 파견 프로그램'은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학교별 선발 인원 제한과 높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 체감 혜택은 낮은 실정이다. 경쟁률과 미달 여부 등 주요 정보가 비공개되는 구조는 학생들의 정보 접근성을 저해하며 학점 인정 역시 수업 시수만을 기준으로 제한돼 있어 단기 연수의 학습 성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교류 확대를 위한 신규 협정 추진과 병행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과 투명한 운영을 위한 행정적 보완이 요구된다.

7면에선 20대 청년층의 금융 이해력 부족 문제를 다뤘다. 최근 조

사에 따르면 20대의 금융 이해력은 70대 다음으로 낮았으며 특히 △금융 태도△디지털 보안 민감성△재무 계획 수립 등에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디지털 금융 보안△소비 중심의 태도 △장기 재무 계획 미흡에 대한 인식 부족은 실생활 속 금전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이는 과도한 부채 증가와 같은 현실적 위기로도 이어지고 있다. 청년층의 금융 이해력 부족은 실질적 교육 기회의 부재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며 현재 교육과정은 이론 중심의 경제 과목 위주로 구성돼 실생활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교사 수 부족△낮은 과목 개설률 △디지털 금융에 대한 무감각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청년층의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확대와 함께 실질적인 생활 금융 콘텐츠 제공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처럼 학교 교육 과정에서부터 실용 금융을 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9면에선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기술의 작동 원리와 그에 따른 법적·윤리적 쟁점을 다뤘다. AI는 창작을 쉽게 만드는 동시에 기존 예술가들의 정체성과 수익 구조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저작권 침해 여부는 학습 데이터와 인간 개입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는 관련 법과 제도가 미비해 논의가 진행 중이며 AI 생성물에 대한 권리 범위 설정과 투명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제기된다.

변화란 결코 쉽지 않다.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때로 무거운 짐처럼 다가온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할 때 비로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학교도 우리도 모두 완벽하지 않다. 그렇기에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오늘의 고민이 내일의 성장이 되길 바라며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길 바란다.

정소희 부장 09sohee@hufs.ac.kr



# 정치(政治)와 정치(停治)의 사이에서

정치란 무엇인가? 이는 오랜 학문 연구 속에서도 여전히 논쟁 중인 내용으로 하나의 유의미한 결론으로 통합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확실한 것은 권력을 쟁취한 일부 위정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돼선 안된단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정치엔 기초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된 의원부터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참정권 행사를 통해 민주주의의 주체로서의 자신을 느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정치의 모습은 대의민주적 요소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와 상당히 빗나가고 있는 것 같다. 더 이상 그들은 공약을 통한 선거 경쟁에 집중하지 않는다. 자신을 따르는 자들은 '나의 편'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적'으로 규정되는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나면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후보 내지는 정당만큼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실상 그들의 행태를 하나씩 살펴보면 오늘날의 정치적 분열에 대한 책임을 어느 특정 정치인에게만 씌울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치인들에게는 그 크기만 다를 뿐 각자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다. 지엄한 법의 판결을 부정하고 본인의 뜻과 반대되는 판결을 내린 자들을 정치적 적으로 규정해 삼권분립의 본질을 흔드는 사람도 있다. 자신이 한 △권위주의적 발언△역사왜곡적 발언에 대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지 못하고 고발무리하며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

정도의 차이를 논하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이른바 '편 가르기 정치'를 하고자 하는 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치에 지금 필요한 것은 혐오와 갈등의 정치가 아니다. 이것은 당장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의 승리에 기여할진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건전한 자치문화 형성에 방해가 될 것이 자명하다. △상대방과의 견해 차이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노력하는 정치△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함께 이해를 도모하는 정치△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토론을 피하지 않는 정치가 바로 우리 사회의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정치의 모습은 굉장히 이상적이란 것을 잘 알고 있다. 어쩌면 글을 읽은 누군가는 비현실적인 글이라며 손가락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인 반드시 '이상'을 품고 살아가야만 한다. 그리고 이를 현실을 투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이상은 현실이 될 수 없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과거 이탄희 전 국회의원의 발언이 계속 귀에 맴돈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정치가 없습니다. 남의 말에 조롱하고 반문하고 모욕주면 끝입니다. 반사이의 구조니까" 우린 언제쯤 더 아름답고 성숙한 정치 경쟁을 할 수 있을까. 과연 그 방향으로 발을 내딛을 수나 있을까. 불과 3주 뒤엔 또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 유권자로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요즘이다.

·이승원(외대학보 편집장)

## 기자들의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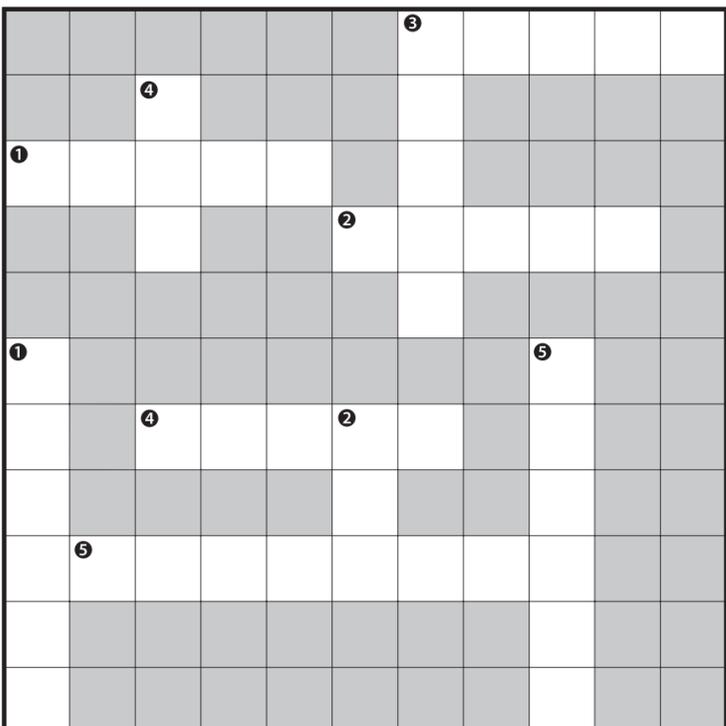
- 다들 충분히 놀았나요? 이제 기말고사 준비를 해봅시다

- 학보사 침구 교체 시급합니다

- 벌써 이번 학기 마감도 마지막...

- 바나나 푸딩 맛있다!

## 십자말풀이



### 가로

1. 흠어진 사람들이란 뜻으로 고국을 떠나는 사람 혹은 집단의 이동을 의미한다. (2면 참조)
2. 우리학교 설립 내 학생 게시물을 관리하는 팀이다. (3면 참조)
3. ○○○○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국에서 연평균 400권이 넘는 크고 작은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다. (8면 참조)
4. 고품질 이미지와 영상을 제공하는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의 이름으로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대표 사례 회사 중 하나이다. (9면 참조)
5. 디지털 보안 민감성에 관해 묻는 분야로 디지털 금융의 활용도가 높은 청년층이 정착 디지털 금융 보안에 대해선 둔감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7면 참조)

### 세로

1. 지하 개발을 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예산과 시간 문제로 생략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8면 참조)
2. 현재 외대학보는 ○○의 언론인, 111기 수습기자를 모집 중에 있다. (1면 참조)
3. 우리학교 ○○○○는 외국인 유학생과 우리나라 재학생 간 교류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 중에 있다. (4면 참조)
4. 우리학교 기념품 판매 주제 중 하나로 학생들 비롯한 의류를 판매하고 있다. (3면 참조)
5.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렸던 회의로 이 회의 참석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메도 일사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을 만났다. (8면 참조)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 정정보도: 1104호 '우리학교 개교 71주년 기념식 개최, '100년 외대' 도약 다짐'에 대한 정정보도

지난 외대학보 1104호 보도 기사에서 HUFSS AWARD의 수상자를 기술하는 과정에 오기가 있었음을 밝힙니다. 구체적으로 '류정열 우리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로 기술된 부분을 '故류정열 우리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로 정정함을 밝히며 본지의 실수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나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8seungwon@hufs.ac.kr

##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정운  
 편집인 겸 주간 지성욱  
 편집장 이승원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우리나라 인디 록의 전설 **델리스파이스**의**윤준호** 베이스트를 만나다

우리나라 인디 밴드(Indie Band)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이름이 있다. 아직도 대학 밴드부 공연에서 끊이지 않고 찾아볼 수 있는 '차우차우-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 보려 해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고백'의 원곡자인 밴드 델리스파이스(Deli Spice)다. 윤준호(서양학·이탈리아어·90)는 1995년에 델리스파이스를 결성해 음악 활동을 이어오다 현재는 경인방송 라디오 '델리스파이스의 뮤직 시티 윤준호입니다'를 진행하며 서울디지털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우리나라 인디 록(Indie Rock)의 전설과 같은 밴드 델리스파이스의 윤준호 베이스트(Bassist)를 만나보자.

**Q1. 우리학교 이탈리아어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탈리아어를 조금 할 줄 알았어요. 우리학교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탈리아어 사전을 사서 혼자 공부해 봤고 이탈리아 음악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게 진학으로 이어졌죠. 사실 그 시절엔 전공이 지금처럼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들 전공과 관계없이 취업하고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였거든요.

**Q2. 대학 시절의 경험이 삶의 방향에 있어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아웃사이드(Outsider)란 교내 밴드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는 밴드부에 들어가서 베이스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연습곡이 정해지면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연습하다 보니 1학년 땀 살이 10kg이나 빼졌었어요. 2학년 땀 말 그대로 '속이 썩는'다는 의미를 몸소 느낄 정도였어요. 그만큼 열심히 했단 뜻이겠죠. 무언가에 몰입해서 열심히 해본 경험은 그게 무엇이든 분명히 좋은 자산으로 남는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동아리 활동이 제 인생을 결정지은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Q2-1. 음악을 할 때 비전공자로서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비전공자는 확실히 이론이 부족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고 연주력 측면에서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어느 정도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음악에 한계가 있던 걸 느껴요. 그렇지만 실제로 오래 활동하며 잘된 인디 밴드 중엔 △노브레인(No Brain)△델리스파이스△자우림(紫雨林)△혁오처럼 비전공자들이 많아요. 오히려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저만의 색깔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냥 부딪혀보는 거죠.

**Q3. 음악인의 꿈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취미로 밴드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새 앨범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때도 "아, 나는 정말 운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지 음악으로 돈을 벌거나 직업으로 삼을 수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음악이란 건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90년대에 너바나(Nirvana)가 등장했잖아요. 너바나는 아마추어리즘(Amateurism)의 정수를 보여준 팀 중 하나예요. 연주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자기 색깔만 명하다면 음악으로 승부를 볼 수 있던 걸 보여줬죠. 그 이후로 수많은 얼터너티브 록(Alternative Rock)\* 밴드들이 등장해 지금의 인디 문화\*\*로까지 이어졌고요. 그런 흐름

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Q4. 델리스파이스 결성 당시에도 취업 준비와 1집 작업을 병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전업 음악인이 되겠다고 마음먹은 건 아니었습니다. 밴드 결성 당시에 전 4학년이었지만 무역학과 복수 전공을 하고 있어서 1년이 더 남은 상태였죠. 일주일에 한 번만 등교할 정도로 시간 여유가 많았어요. 그래서 재미 삼아 만들어보려고 시작한 게 델리스파이스였어요. 요즘엔 밴드가 잘 되면 저작권료와 인세를 받고 무대에 서면서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는데 저희 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자체가 없었어요. 기대치가 없었으니 무대에만 올라가도 앨범이 조금만 팔려도 감격스러웠죠. 하지만 당시엔 밴드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취직을 하려고 2집을 내고도 토익(TOEIC) 학원에 다녔었습니다.

**Q4-1. 언제 밴드 활동에 전념해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델리스파이스가 제 첫 직장은 아니에요. 제 첫 직업은 재학 중에 시작한 방송 작가예요. 당시엔 유선방송 음악 채널(Channel)이 활발하던 시절이라 장르별로 뮤직 비디오를 소개하는 프로그램(Program)이 많았어요. 그런 데서 음악 대본을 쓰는 작가로 일했죠. 또 'TV 가이드(TV Guide)'라는 방송 잡지에 '윤준호의 팝 아이스(Pop Eyes)'라는 코너를 맡아서 '팝을 바라보는 시선'이란 주제로 매주 음악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그렇게 글 쓰는 일 덕분에 내한 오는 밴드들과 인터뷰도 많이 했어요. 블러(Blur) 같은 팀들과 단독 인터뷰한 기억도 있고요. 또한 외국 공연 취재를 위해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에 가서 직접 해외 공연을 보고 기사를 썼어요. 그러다 델리스파이스가 점점 잘되면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음악 활동 중심으로 전환된 것 같아요.

**Q5. 델리스파이스의 음악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감회가 어떠신가요?**

신기하죠. 사실 이제 델리스파이스의 음악은 옛날 음악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까지 오래된 음악이론 느껴지지 않는단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고백'만 해도 2003년에 나온 곡인데 여전히 사랑받고 있던 게 정말 신기하고 감사하죠.

**Q6. 영화 '시체가 돌아왔다'의 음악감독을 맡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음악 작업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데 음악인으로서 추구하는 가치관이 궁금합니다.**

저는 거창한 가치관을 가지고 음악을 해온 건 아니지만 나중에 돌아켜봤을 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매 순간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 계획을 세우고 살아간다고보다 그냥 주어진 일을 후회 없이 재미있게 잘 해보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영화 '시체가 돌아왔다'는 제가 처음으로 음악감독을 맡은 상업영화였어요. 감독님이 이후에도 시나리오를 5편 넘게 보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전부 제작이 무산됐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정말 혼신을 다해 작업하길 잘했던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다음 기회에 더 잘하지 뭐'하면서 힘을 아꼈다면 다음 기회 자체가 안 왔을 수도 있잖아요.

**Q7. 현재 경인방송 라디오 '델리스파이스의 뮤직 시티 윤준호입니다'를 진행 중이신데 라디오 진행 경험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제가 처음으로 라디오 진행을 맡은 건 1999년이었습니다. 전에 이소라 씨 프로그램에서 코너를 맡긴 했었지만 정식으로 진행해 본 건 그게 처음이었어요. '델리스파이스의 우리들'이란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시적이었죠. 지금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한 달만 대타를 해달라는 요청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7년째 진행하고 있네요. 라디오는 제게 직업이라기보다 생활에 가까워요. 마치 친구 만나듯 자연스럽게 스며든 일상 같아요. 친구 만나러 갈 때 무슨 이야기를 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듯 라디오 역시 특별한 내용 없이도 청취자들과 그 시간을 함께 보내는 느낌이 좋습니다.

**Q7-1. 라디오 진행을 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1인 제작 프로그램입니다. △작가△진행△콘솔(Console)△피디까지 전부 제가 하는데 저는 이 구조가 오히려 잘 맞더라고요. 혼자서 하다 보니 생방송 중에 코너를 만든 적도 있어요. 한 청취자분이 울린 공연 후기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걸 보고 '나의 공연 관람기'란 코너로 4주 동안 소개했어요. 작가나 피디가 있었으면 즉석에서 그렇게 진행하긴 어려웠을 거예요.

**Q8. 실용음악과에서 강의하고 계신데 교수님의 위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가 맡은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수강합니다. 한국 대중음악사의 경우에는 800명이 넘게 수강하고 있어요. 녹음실에서 카메라를 보며 강의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강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마음가짐'이에요. 또한 재밌는 강의를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저는 항상 '지금 이 앞에 학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화면 너머 학생들이 웃고 반응하는 걸 상상하면 서 질문을 던지고 농담도 해요. 감사하게도 제 강의를 기다려주는 학생들이 많아요. '교수님 강의는 치유받는 시간이었다' 같은 강의평을 받으면 정말 기쁘죠.

**Q9. 앞으로의 인생에서 개인적인 목표를 여쭙보고 싶습니다.**

예전엔 무대에서 혹은 앨범을 통해 제 음악을 들려줬다면 지금은 말이나 글로 음악을 전하고 있어요. 돌아켜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음악을 전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같더라고요. 강의를 마친가지로 한 학기 수업을 들은 학생이 '교수님 덕분에 제 재능목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라고 말해주면 정말 뿌듯하죠.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거나 특강을 다니면서 준비한 내용을 전하고 듣는 분들이 재밌어하는 걸 보면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구나' 싶어요. 제 일을 열심히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 바람입니다.

**Q10. 마지막으로 현재 음악인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재학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스스로를 치밀하게 분석했으면 음악을 하지 않을 거예요. 밴드로 생계를 이어간다는 건 상상도 못 하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진심으로 원하는 게 있다면 때론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냥 한 걸음 내딛는 무모함이 필요합니다. 잘 닦아놓은 고속도로 대신 직접 나무를 자르고 자갈을 깔아 만든 숲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닦아놓은 길을 나중에 누군가가 따라 걸어올 수도 있고요. 힘들었지만 결국엔 가치 있는 길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참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얼터너티브 록(Alternative Rock): 1990년대 초에 기존 록 음악의 구성 방식에서 벗어난 록 밴드들이 등장하면서 인기를 끌게 된 록의 한 장르

\*\*인디 문화: 상업적인 거대 자본이나 주류 문화 흐름에서 벗어나 창작자가 독립적으로 제작 및 유통하는 문화